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41호 HYUNBULNEWS.COM 2025년 7월 30일(음력 윤6월 6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7월 24일 최근 극심한 호우 피해를 입은 산청 지역을 찾아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조속한 피해 복구를 발원했다. 진우스님이 산사태로 밀려내려온 바위와 토사로 피해를 입은 산청 율곡사 경내를 살펴보고 있다.

조계종 "집중 호우 희생자 극락왕생 발원"

이도경 · 유재상 지사장

불교계, 피해 주민 · 유족 일상 회복 염원
진우 스님, 7월 24일 산청 · 서산 방문
조계종긴급구호단, 복구 지원 · 물품 전달
태고종, 담화 발표 "모금 · 봉사 동참"

최근 집중호우로 전국 각지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불교계가 수해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7월 21일 긴급구호단을 현장에 파견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24일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직접 사찰을 방문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조속한 피해 복구를 발원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23일 담화문을 발표해 국민을 위로하고 불자들에게 성금 모금과 봉사 활동을 독려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7월 24일 오전, 경남 산청을 찾았다. 산청은 나흘간 평균 632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 등으로 14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특히 제12교구본사 해인사 말사 10여 개 사찰이 크게 파손됐다. 율곡사는 보물로 지정된 대웅전 벽이 무너지고 토사가 법당 안까지 밀려든 상태다. 요사채 한 동도 바위가 밀려들며 완전히 붕괴되는 등 도량 전체가 피해를 입었다.

진우 스님은 현장 방문에 앞서 율곡사 대웅전에서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호우로 유명을 달리한 주민들의 왕생극락을 발원하고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어 도량을 살펴보며 처참한 율곡사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스님은 자연 재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언급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종단에서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율곡사 주지 수미 스님은 "단수로 생활이 어려웠는데 해인사 본사에서 많은 도움을 줘서 현재 부분적으로나마 생활이 가능하게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마을 주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에도 염려를 표했다. 수미 스님은 "주민들은 어릴 때부터 율곡사를 자주 찾던 신도들로, 실질적인 사찰의 주인"이라면서 "이웃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먼저 돕고 도량도 잘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산청에 이어 오후에는 서산을 방문, 상황을 살폈다. 서산 지역은 나흘간 누적 강수량이 500mm가 넘어가 7월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충청 지역 사찰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 제7교구본사 수덕사는 나무가 전도되고 하천이 범람하면서 토사까지 유입된 상태다.

파손된 도량을 보고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한 진우 스님은 "정부의 빠른 조치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 "행정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종단 차원에서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불교계는 모연과 현장구호, 긴급키트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해복구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소임자 스님들과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종회의원 진각·경암·향록·학암·정범 스님 등이 함께했다.

태고종은 총무원장 상진 스님 명의로 7월 23일 '집중 호우 피해에 따른 위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희생자와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로했다.

상진 스님은 "태고종 전국 사찰과 종도들이 중심이 되어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성금 모금과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모든 국민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계종긴급구호단(단장 묘장 스님)은 7월 21일부터 산청과 서산 지역에서 복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산청 율곡사와 인근 마을 피해 현황을 점검한 구호단은 화장지와 비누, 치약, 칫솔 등이 담긴 긴급구호 키트 100개를 전달했다. 또 10명으로 구성된 구호단을 서산에 파견,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천장사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이 7월 17~21일 집계한 전국 사찰 피해현황에 따르면 충남과 경북, 전남, 경남, 세종, 울산 지역 사찰 50여 곳이 토사유입, 축대 붕괴, 침수, 산사태 등의 피해를 입었다.

▶3면에 계속

본각·계호·광용 스님, 조계종 최초 비구니 법계위원됐다

진우 스님 7월 23일 위촉장 수여
"책임감 갖고 소임 다할 것"

조계종 사상 첫 비구니 법계위원이 탄생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7월 23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법계위원회 비구니 위원 위촉식'을 갖고 본각·계호·광용 스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진우 스님은 조계종 최초로 비구니 법계위원으로 위촉된 본각·계호·광용 스님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를 표했다. 스님은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이 공감한 덕분에 '법계법' 개정이 가능했다"면서 "총무원장 재임 기간에 비구니 스님들의 권리와 권익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게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비구니 법계위원 스님들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조계종 청사 화재 복구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비구니 스님들은 이번 법계위원 위촉을 계기로 불교 승가 공동체의 진정한 평등과 전문성이 확보되길 기대했다. 본각 스님은 "법계를 심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구니들이 비로소 조계종단에서 동등하게 대접받게 됐다는 마음이 든다"고 소감을 전했다.

계호 스님도 "승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광용 스님은 "비구니회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은호 기자

▶4면에 계속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7월 23일 최초의 비구니 법계위원인 본각 · 계호 · 광용 스님(사진 왼쪽부터)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현대불교신문 AI 그림 공모전 개최

AI로 그리는 '21세기 부처님'
8월 4~29일, 이메일로 접수

현대불교신문(대표 한명우)이 불교계 최초로 AI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 '2025 현대불교신문 AI 그림 공모전'의 주제는 '21세기에 부처님이 계신다면?'이다. 이 시대에 부처님이 계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를 생성형 AI를 이용해 그림으로 표현하면 된다.

공모 기간은 8월 4~29일이며 응모는 1인 1작품으로 한정된다. 현대불교신문 홈페이지에서 공모지원서를 내려받아 이메일(hbnewmedia@naver.com)로 보내면 된다. 02-2004-8252

AI로 되살린 스님 독립운동가-② 비구니 스님들의 독립운동 11면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 폭압에 맞서 독립운동에 나섰던 스님들의 활동을 조명하며 비구 스님에 이어 두 번째 순서로 비구니 스님들의 항일운동을 담았다. AI(인공지능)로 복원한 비구니 스님들의 모습은 암울한 현실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밝은 표정으로 구현됐다.

여름휴가 관계로 다음 호는 휴간합니다.

한국관광학회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대한불교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조 계 종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

2025년 템플스테이·사찰음식
논문공모전 9.1-10.31

참가기준
참가 자격 일반인, 대학(원)생, 연구자(내국인, 외국인),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에 관심있는 자
공모 부문 템플스테이·사찰음식
논문 주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중심으로 한 불교문화의 현대적 가치와 정신·관광 자원으로서의 지속가능성 탐색 관련 자유 주제
참가 형태 개인 또는 팀(공동연구는 최대 4인까지 허용)
참가 방법 논문 및 관련 양식 작성해서 이메일(tosok.kbc@gmail.com)제출
진행 방법 논문 제출 후 (1차) 서면심사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추진일정
사전접수 8월 31일까지 → 논문접수 9월 1일 ~10월 31일 → 1차심사 결과발표 11월 2주(11/9) → 본선 발표 및 우수논문 시상식 11월 3주(11/21)

논문시상

구 분	주제 부문별 시상 수		시상금	시상금 합계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대상	1팀	1팀	300만원	600만원
최우수상	1팀	1팀	150만원	300만원
우수상	3팀	3팀	80만원	480만원

※ 수상 기준 미달 시 수상자가 없을 수 있으며, 시상 내역이 달라질 수 있음
※ 공모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 시 논문게재 확인서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제출해야 함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기획팀 : 02-2031-2026

접수·문의 한국관광학회, 2025템플스테이·사찰음식 논문공모전 운영팀
이메일 : tosok.kbc@gmail.com
한국관광학회 한국불교문화사업단